**Deutsche Bank – Rates Structuring**

1. **김미린 사원 - 30분 / 1:1 면접**

현재 sales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내년(2014년)부터 structuring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심. 이 인턴 자리는 FX rate 담당 상무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라 설명해줌. Resume 기반의 fit 위주의 질문만 하셨음. 이 분과 인터뷰는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음.

**질문:**

* 자기소개?
* KFAC에서 한 일에 대해 설명해봐라. (KFAC을 알고 있는 분이었음.)
* KIP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짰는지?
* IBS(예전에 했던 경영학회연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 EM에서 무엇을 했는지?
* 89년 생인지?

상무님께서 이제 들어오실 것이라며 기다리라 하시고 나가심.

1. **민정석 상무님 – 40분 / 1:1 면접**

FX rate 담당 상무님. 현재 structuring 부서는 FX rate, bond yield rate 각각 상무님 한 분씩이 계신다 하심. Lehman, Merrill, Deutsche 동경 오피스에 계시다가 작년(2012년)에 서울 오피스로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심. Carnegie Mellon에서 금융공학 박사 과정을 밟으심.(헐대박) 나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음. 미리 resume를 꼼꼼히 읽어오셨고, 내 extra-curricular 경험과 학업적 background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셨음. 대략 25분 정도 technical한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15분 정도 fit 관련 질문을 하셨음. 원래는 30분 면접인데 상무님과 이야기가 길어져서 10분 정도 더 진행됨. 중간 중간에 나의 답변에 대한 feedback과 조언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음. 하지만 technical한 질문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음 ㅜㅜ

**질문:**

* **Walk me through your resume.**
* 답변을 드리다가 “저는 현재 다른 인턴 경험 등의 work experience는 없지만, 불라불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가 인턴을 뽑을 때는 다른 인턴 경험의 많고 적음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음.
* **KIKO에 대해서 공부했던데, 연구하면서 네가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설명해봐라.**
* 나는 volatility를 구하는 scheme에 따라서 price가 많이 다를 수 있고, distribution의 property를 나타내는 parameter들의 estimate하는 방법에서 consistency함과 stationary함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고 말씀드림. 상무님께서는 KIKO 사태가 pricing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자들이 over hedge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태라 생각한다고 하심. 현재 소송에서 KIKO를 구매한 기업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하셨음.
* **KIKO pricing할 때 volatility를 term structure로 대입했는지 flat하게 대입했는지?**
* **European cash or nothing call option의 vega profile에 대해 설명해봐라.**
* 조금 당황했지만, plain vanilla보다는 positive payoff가 한계가 있으므로, vega가 작을 것 같다고 말씀드림. 그러다가 상무님께서 나는 delta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하셨음. 그러시면서 상무님께서 원하신 답변은 in the money에서는 vega의 부호가 (-)이고 out of the money에서는 부호가 (+)라는 것이라 하심. 사실 나도 모호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말씀 드린 것이어서, 차근차근 내 생각을 다시 말씀드림. 일단 알았다고 하셨음. 어쨌든 원하신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절망함 ㅜㅜ
* **Systemic risk measure인 CoVaR가 일반적인 VaR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 **어떠한 점에서 CoVaR가 불완전한 measure라 생각하느냐?**
* **CoVaR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 상무님께서 Lehman에 계셨을 때, 2008 금융위기가 터졌었는데 AIG 등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 systemic risk와 관련이 깊다고 하셨음.
* 이쯤에서 technical한 질문은 끝났음. 2, 4번 질문에서 원하신 답변을 별로 못 한 것 같아 절망감이 들었지만, 상무님께서는 금융공학 박사이신데 학부 때 자신도 못한 것을 내가 많이 해봤다며 칭찬으로 마무리.
* **어떻게 외고에서 KAIST 갈 생각했냐?** (승제랑 나랑 단골 질문인 듯 ㅋㅋㅋ)
* **외고와 과학고 중에서 외고를 선택한 계기가 무엇이냐?**
* **그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받기 힘들었을 텐데 실제로 어땠었냐?**
* **Rates structuring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아는 데로 말해봐라**
* **Why finance?**
* **질문 있냐?**
* 아쉽게도 이미 면접 시간이 10분 초과되어서 약간 눈치껏 짧게 해야 될 분위기였음. 그래서 명함만 부탁 드리고 나왔음.